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1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3호



▲ 지난달 11일 개최된 2018년 사회공헌 혁신포럼에서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기업·기관 담당자들이 사회공헌의 새싹을 틔운다는 의미를 담아 화분에 물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회공헌 플랫폼 조성해야”

도 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혁신포럼

사회공헌 혁신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하며 오랜 시간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8년 사회공헌 혁신포럼 ‘새로운 시대, 사회공헌 혁신을 말하다’가 지난달 11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가 ‘사회적 책임(CSR)’에서 ‘공유가치창출(CSV)’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사회공헌 혁신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현 (유)섬이다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

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사회공헌은 회사가 존립하는 한 지속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 방식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렵고, 실체가 없는 이벤트 방식 역시 지양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과 전략적 방향, 전략적 선택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대권 (주)코리스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헌 혁신의 개념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제언했다.고 대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도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하면서 위치를 잡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헌규 (주)에어블랙 대표 역시 ‘사회공헌 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은 기업사회공헌의 환경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 등을 사례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공헌의 새싹을 틔운다는 의미를 담아 화분에 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최고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도협의회, 23일까지...명예의 전당 등재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명예의 전당’의 새 얼굴을 찾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오는 23일까지 ‘제9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를 추천 받는다.

명예의 전당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추천은 제주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가 할 수 있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대상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해 추천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다.

추천기준은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인증관리 DB시스템(VMS) 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다.

신청은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에게는 등재기념 순금배지 및 기념패가 수여되며, 공적 및 활동사항이 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과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명예의 전당’코너에 등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064)726-5786, 070-4726-8823으로 하면 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충충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 필요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사회복지소식 4면 “사회공헌 전담기구 설치 필요”	■ 기획 7면 시설탐방(100)-온빛마을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봉사단이란?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봉사단’입니다.

활동분야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환경식품안전 •상담 •기술기능 •교육학습 •일감개발
•재가대상 •행정 •문화예술

지역사회봉사단 누계 (18.10.22 기준) : 127개팀

활동분야	총계	기술기능	교육학습	상담정보	노력행정	운영지원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통환경
(팀)	127	14	28	2	48	17	5	11	1

※수요연계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단체는 담당 코디네이터 070-4726-6800 / 726-57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사회적 약자 편리한 시설 만들어야”

지난달 11일, 도의회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김성완)은 지난달 11일 제주도의회에서 ‘2018 제주 유니버설디자인(UD)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에서 이호창 디자인이즈 대표는 ‘제주도 UD 조성을 위한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수립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이미 해야 할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며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BF인증제도와 서울시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적용강도, 규모를 구체화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개정안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국협의체가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일이 아니고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실국협의체를 꼭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양로원, 어르신 공예활동 진행 ‘호응’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원장 신현권)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양로원과 지역내 도서관, 공방 등에서 시설내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꿈지락 꿈지락 공예활동으로 우리 모두 예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종이 공예, 목공예, 전통매듭, 도자기공예 등 동아리를 선택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

르신들이 직접 만든 새집을 외도동 월대천 주변 및 한라 생태숲에 전달하는 등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과 함께하는 연계 수업도 진행,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양로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양로원이 아닌 공방이나 도서관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부인들이 욕구도 충족하고 공방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강화한 제2단계 ‘더(More) 제주처럼’을 수립한다.

제주지역 첫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은 지역내 여성정책 수요조사

등 도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대 전략,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먼저 지난 4년간 추진한 ‘제주처럼’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투입예산, 사업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책성

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도정 영역 전반에 성평등 관점 확산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 향후 2022년까지 2단계 ‘제주처럼’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4525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실태와 복지요구 파악, 생활교육과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비는 26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는 10억원이 증가된 3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직접방문

13만회, 안부전화 확인 27만회를 실시했으며, 2189회의 생활교육에 2만 2천여명(누계)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2만 3804회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도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000여명(제주시 1800, 서귀포시 1200)에게 전기세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3700여명에게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해 폭염 및 혹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예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212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1,952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제빵228봉 ▲김태연님=생활용품14개 ▲나눔베이커리=제빵185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62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44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879개 ▲미인빵=빵85봉 ▲비엔누아즈=제빵388봉 ▲SH유통=과자1039개 ▲이든이네=건어물20kg ▲정필이오메기떡=떡20개 ▲제주보리촌=제빵627개 ▲참새방앗간=떡736개 ▲코코호두=제빵8박스 ▲파파무베이커리=제빵74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40,000	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1,775,000	1,77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05,000	4,185,450
푸드마켓 후원	3,060,000	220,7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 필요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시청에서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박사는 주민 욕구조사 주요결과와 읍·면·동 찾아가는 인터뷰 주요 결과, 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현황, 목표 및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 박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환경분석을 통해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이 내부적 강점이라고 발표했다.

외부적 기회로는 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예산이 증가하고



민-관 협력 필요성 공감, 중앙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에 대한 공공역할 강화 노력 등을 꼽았다.

반대로 맞벌이 증가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지수 낮음,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낮은 포용 인식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으며 외부지역의 인구유입 증가로 인한 생활만족도 저하, 민-관 실질적 협

력 경험 부족 등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제주, 도민이 공감하는 복지제주'를 목표로 설정해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 구현,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 성황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지난달 11일 한림체육관에서 '제16회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고희범 제주시장, 박원철 제주시의회 의원, 윤두호 제주사회복지관 협회장, 서부지역 어르신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제주경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마을별 솜씨자랑, 이팔청춘 실버학당, 비바청춘예술단의 발표회, 한빛누리예술단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시상 결과 애월읍 광령2

리 경로당(울동)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고 ▲은상= 한경면 산양리 경로당(노래) ▲동상= 애월읍 수산리 경로당(노래) ▲인기상= 애월읍 애월리 경로당(실버댄스), 한림읍 월령리 경로당(노래)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림라이온스클럽부인회와 제주보호관찰소, 월계수라이온스클럽, 한림교회 여전도회, 제주해병대 9여단, 한국가스공사 제주기지건설단 등 지역 내 많은 봉사자들이 협력한 가운데 이뤄지면서 어르신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축제 열린다

올 한 해 진행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결과물을 전시, 발표,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오는 15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2018 평생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평생교육축제는 크게 볼거리 코너, 먹거리 코너, 즐

길 거리 코너로 나눠서 진행된다.

볼거리 코너는 인형극, 우쿨렐레, 오카리나, 댄스, 마술 공연과 다양한 전시가 마련되고, 즐길거리 코너는 천연제품 만들기, 보드게임, 리본공예, 냅킨아트, 장애인해 등 체험활동이 준비된다.

행사 당일 먹거리 및 체험 활동 이용은 전부 무료이며,

부대행사로 미니 할인장터와 포토존, 게릴라 대회 등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평생교육 축제는 장애인들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에게는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김성완)은 지난달 22일 중증장애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제주 1일기행'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외출 및 여가 문화 활동에 제약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워터서커스를 방문해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카멜리아힐을 방문해 핑크몰리, 천일홍, 코스모스 등을 감상하는 등 참여자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함께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

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

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했다.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무연분묘 무주고혼 위령천도재 봉행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지난달 13일 충혼묘지에서 '제16회 무연분묘 무주고혼 위령천도재'를 봉행했다.

춘강은 지난 2003년부터 음력 8월 충혼묘지에서 무연분묘 무주고혼 위령천도재를 봉행해 왔다.

이번 천도재는 충혼묘지 주차장에서 천도재봉행(현파

스님의 여러스님들)과 추모법회 동봉 큰스님(서울 대각사 주지)및 음성공양(태고연합합창단, 반야사관자재합창단)을 했다.

춘강 관계자는 "위령 천도재를 지내는 일은 조상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며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전담기구 설치 필요”

한국자원봉사학회 등 추계학술대회



(사)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김성준)와 제주연 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 센터는 지난달 19~20일 제주대학교 등에서 ‘기업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기업 사회공헌 현황과 발전방

안을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기업 사회공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2016년 6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의 실질적 시행과 전문인력 양성, 사회공헌 전담기구 설치 가 필요하다”며 “기업 등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

닌 상호존중, 파트너십,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환경조성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6년 동안 진행된 두산인프라코어와 월드비전의 드림스쿨 활동을 중심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했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교수는 CSR의 용어 정리와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를 통한 기업사회공헌의 동향을 토대로 기업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2018 제주국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



(사)제주 장애인연맹이 주최하고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2018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

제’가 9~11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는 ‘더불어 함께’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개막작으로는 허진호 감독의 ‘두개의 빛’이 초청작으로는 가와세 나옴 감독의 ‘양 : 단팔 인생 이야기’ 김성호 감독의 ‘엄마의 공책’이 선정됐다.

단편경쟁작은 ‘소년의 자리 The empty seat’ ‘일곱 빛깔 무지개 Seven color Rainbow’ ‘달과 우리 Moon and us’ ‘개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Dogs’ ‘벌새 Humming Bird’ ‘병훈의 하루 Mad Rush’ ‘2인 3각 The Three-legged Race’ ‘칼국수 먹으러 가는 길 The Second Dine Out’ ‘사랑은 가위바위보 Love’s Paper Scissors Stone’ 등 9개 작품이 상영된다.

이밖에도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故 박종필 감독 특별전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단편영화제작워크숍 ‘딥포커스’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문화 가정 부부 합동 결혼식 거행



제주시는 지난달 24일 퍼시픽호텔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부부 7쌍을 대상으로 ‘2018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거

행했다.<사진>

결혼식은 송은옥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과 홍경애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의 화촉점화를 시작으로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의 주례, 축하공

연, 신랑·신부와 가족·친지들이 함께하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혼식을 치르는 7쌍의 부부는 모두 다문화가정 부부로 신부의 국적은 네팔, 몽골, 필리핀이 각 1명이고 베트남, 중국이 각 2명이다.

한편, 합동 결혼식은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65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소/식/마/당

(무순)

제주나눔대축제 평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8일 협의회에서 제주나눔대축제 부스운영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나눔대축제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웃사랑 물품 전달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지난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약 30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쌀 1000kg)을 전달했다.

고병기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과 봉사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9일 KIS Jeju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학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진과 자료를 전시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를 안내했다.

개인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9월 1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2018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한국무용과 연극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무용과 연극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개인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볼링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양정심)은 지난달 5일 도내 15개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신청한 170명의 선수와 장애인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제주시장애장애인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는 7개 장애유형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회공헌활동 ‘훈훈’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와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지난달 20일 구좌읍 평대리 일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은 마을·해안 정화 활동, 무료 진료, 김장김치 나눔(50가정), 주거환경 개선(3가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춘강은 2010년부터 매년 2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소/식/마/당

(무순)

심신건강 프로젝트 실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6일 직원과 봉사자, 어르신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관광(주)(사장 이정훈)의 관광버스 후원을 통해 '심신건강 프로젝트' 가을나들이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외부활동으로 우울증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나들이는 서귀포에 관광 명소인 올레시장을 관광하고 춘강어울림터에서 맥된장 만들기 등으로 꾸며졌다.

스타렉스 특수차량 지원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이사장 조여상)은 지난 12일 무지개렌트카에서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에 장애시설 지원을 위한 스타렉스 특수차량 1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이용인들이 보다 나은 이동권 보장을 통해 욕구 충족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복한 가을 소풍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달 3일 이용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중앙적십자봉사회(회장 김창남)와 함께 일출랜드와 에코랜드에서 '꿈 찾아 떠나는 행복한 가을 소풍'을 실시했다.

가롤로의집 관계자는 “봉사회에서 버스대절과 점심식사, 간식까지 많은 부분을 준비해 주었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봉사회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2일 애월체육관에서 하귀어린이집(원장 강보승) 6~7세 원생들과 함께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어린이들과 어울려 기념식과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게임을 하며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송죽원과 지역아동들이 서로 한 발짝씩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참여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10일과 13일에 쉼터 청소년들과 함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실시한 탐라문화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현00군은 “보기만 하던 퍼레이드에 직접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어 새로웠고 제주도의 여러 문화와 전통 신을 보면서 제주의 문화를 다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관광지 탐방



기로회요양원(원장 현미숙)은 지난달 13일 어르신과 보호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과 자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소인국테마파크 관람 주변 관광지 드라이브 등 추억만들기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효(孝) 실천에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보람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함께하는 가족여행 마련



디딤돌그룹홈(원장 송일심)은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추석연휴를 통해 그룹홈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2박3일을 보내며 진행된 이번 여행에서는 올레길 걷기, 전통놀이, 피규어박물관 관람, 초콜릿 만들기, 카트타기와 말타기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복지관 차자와수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두호)가 주최하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지난달 15일 우도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각 연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고, 그 외 9개 회원기관 부스운영도 운영됐다.

동백꽃 브로치 나눔 실천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단 반딧불이는 지난달 18~21일 소망요양원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편 빚기 및 동백꽃 브로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제주 4·3 사건 70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손수 만든 동백꽃 브로치를 어르신들께 달아드리며,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시간을 가졌다.

백제역사기행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형자)는 지난 9월 13~15일까지 오리온재단과 구좌읍 지원으로 아동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과서야 나랑 놀자 백제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역사기행에서는 전문해설가와 함께 부여박물관을 시작으로 정림사지5층석탑,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백마강유람, 궁남지, 무령왕릉, 백제재현단지, 석장리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문화 탐방프로그램 진행



공동생활가정인 제주몽생이그룹홈(대표자 김완숙)은 최근 그룹홈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그룹홈 아이들과 우리문화알기 탐방 프로그램 '우리의 문화를 찾아서'를 진행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인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경주 등 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며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용인 도외현장 견학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최근 센터 이용자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일대에서 '도외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견학은 핀란드 국립오페라 단원 바리톤 한동훈 씨와 카페 더 핀란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며 “이용인들이 새로운 지역과 환경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론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사회복지’를 키워드로 8,278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 손지현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연관키워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지역’이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대면하는 현상이 바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중요도 높아

이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하향식 대상자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지역의 복지화’로 전환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일명 ‘커뮤니티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말 커뮤니티케어의 단계적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완전하게 구축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사실상 커뮤니티케어(Comm

unity Care)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재가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인구고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사례처럼,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커뮤니티케어도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를 문제인식의 출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커뮤니티케어인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과연 지역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의 힘’을 강조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지역사회 내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끼워 맞추는 수준에서 무늬만 커뮤니티케어인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세

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된 지역사회의 역량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독려하여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심하게 제도 살펴야

“커뮤니티케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돌봄을 창조하고 적절하게 작동시켜 가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정든마을에서 늙어가기』의 저자인 노우에 유키코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장

기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홍화순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늘 머무를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백로(白露)와 추분(秋分)까지 머무르다가 사라지면서 제주의 역사가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는 가을이 왔나 싶더니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霜降)이 다가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걱정되는 계절이 다가왔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

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원에서 2만 4000원이 오른 금액으로 실물카드(등유, LPG, 연탄)와 가상카드(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다.

사용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이며, 신규대상자

와 기존신청자중 가족사향 변경, 전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분증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변동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청 되어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가까운 판매소에서 결제하면 되고, 가상카드 사용자는 매월 사용한 요금을 차감한다.

우리 동에서는 지원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각종 회의 시 홍보, 개별전화와 문자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고령 등으로 사용방법 및 제도내용 미인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 도움을 준다면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칼럼

양성평등의 실체

다변화된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권이 급속히 신장되었다. 남성우월 가치관 가부장제도와 남존여비사상이 쇠퇴하고 양성평등사회로 도약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고착된 성역할이나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고, 남녀의 다른 행동과 역할 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해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보지만, 여자가 바지를 입어도 규범일탈이나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학교에 남학생 입학은 금해도 평등에 위배 되지 않은 합리적 차별 이치이다.

직업이 분화된 첨단과학 정보사회에서는 삶의 양상이 복잡해진다. 여성이 가사에만 전념하던 시대는 지나고 여성의 역할이 동등해진다.

양성평등의 관념은 가정과 직장 국가사회에 적용되지만,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로의 권리보장이나 행동과 역할, 욕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준다.

남녀의 다른행동... 동등한 가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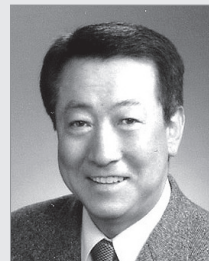
나도 직장에 다닐 때는 가사를 돌볼 여유나 관심도 없었다. 집안일은 으레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적 사고였고, 가사를 돕는 것은 남자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았다.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다. 가사를 전담하던 아내는 지역의 직능단체장을 맡고 봉사활동에도 나서게 되었다. 시간에 쫓기는 아내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안쓰러워 가사를 분담케 되었다. 청소·설거지·빨래정리·화분관리·쓰레기배출 등을 돕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서로 시간을 배분하며 협력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천이고 삶의 조화라는 생각이다.

가끔씩 직장이나 사회에서 남성우월사고의 편견에서 초래되는 여성비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요즘 사회문제가 된 양성평등문제는 좀 특이하다. 얼마 전 홍대 남성 누드사진 게시자인 여성을 경찰이 구속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여성 피의자는 즉각 검거하고 다른 범죄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혐오 사이트 위마드(womad)문제다. 경찰이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로 운영자를 체포하려 하자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처리가 불평등하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경찰이 여성을 편파적으로 대할 이유와 그 결과로 얻을 실익은 무엇일까. 여성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기회와 조건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시설탐방

(100)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고령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가족과의 소통 강화로 만족도 높아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원장 한애정)에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의 운영 목표는 ‘센터는 가정과 같은 집으로’, ‘어르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이 즐거움으로’, ‘남아 있는 힘을 찾아드리기’ 등이다.

운영 목표에서부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민과 노인복지 실현에 대한 의지가 묻어난다.

지난 2006년에 문을 연 센터는 현재(2018년 10월 기준) 입소보호 28명, 주·야간보호 30명, 방문요양 28명, 방문목욕 41명, 등급외방문요양 20명, 도시락 및 물품지원 57명 등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원장은 “시설에 입소한 일부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지만 살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다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라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립된 만큼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 옷놀이, 민요 부르기, 마음공부, 실버제조, 색칠하기 등 건강 상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식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1년에 2회 보호자 상담·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보

호자가 언제든지 방문해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다.

매월 어르신들의 생일마다 잔치를 열어 보호자와 함께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재능기부 민요단체 공연도 실시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 원장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전되기 힘들다. 대부분 현상유지가 되고 있지만 센터에 계셨던 한 분이 눈에 떨 정도로 몸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안전과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골밀도가 낮아 골절이 생기기 쉬운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과 함께 재난 상황대응 훈련,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및 질환검사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 원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맞춰져 있다. 제주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예방적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계, 상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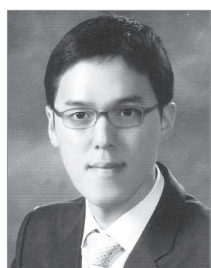


▲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민과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상담터 56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상담터

“대한민국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청중에게 꼭 던지는 질문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손을 드는

사람은 없고 간혹 웃음으로 대답이 돌아온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생동안 우리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최근의 사정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조차 헌법을 읽어볼 기회는 없는 듯하다.

헌법은 법의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이 되는 국가 최고의 법규이기 때문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하고,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는 왜 헌법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 헌법은 양이 너무 많다?

헌법을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양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화 하여(A4용지에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출력을 해보았더니 대략 10페이지 정도가 나왔다. 차분히 앉아서 읽을 경우 넉넉히 잡아도 30분 정도면 1회 정독이 가능한 분량이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다고 할 수는 없겠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한 문단 정도의 ‘전문’과 제

1조부터 제130조까지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118조까지의 민법, 제372조까지의 형법에 비하면 오히려 단출한 구성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헌법을 읽어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1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필독 조문의 범위를 줄여볼 수도 있다. 제40조 이하에서는 국회, 정부, 법원 등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앞부분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헌법의 핵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이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세 문장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법조문을 자세히 알면서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읽어서 알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상담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

제9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추천대상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

2. 추천자격

- ▶ 제주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

3. 제출서류

- ▶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18. 11. 1(목) ~ 2018. 11. 23(금) 17:00
- ▶ 신청방법: 이메일(jejubokji@hanmail.net)제출
- ▶ 문의전화: 064)726-5786, 070-4726-8823

5.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 등재기념 순금배지 시상
- ▶ 등재기념패 증정
-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명예의 전당
김 영 순



제2회 명예의 전당
원 석 철



제3회 명예의 전당
변 명 효



제5회 명예의 전당
한 경 찬



제6회 명예의 전당
정 정 숙



제7회 명예의 전당
고 명 대



제8회 명예의 전당
전 용 운

※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

